

# 사랑과 고통과 구원

- 병원사목 체험기 -

내가 루시아 씨를 처음 만난 것은 암 병동에서였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육체적으로 무척 고통을 겪었고 마음으로도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다. 낮에는 혼자 있지만 밤에는 남편이 음식점 일을 마치고 와서 간이 침상에서 자고 간다.

딸이 사춘기라서 그런지 반항을 한다며 걱정이 많다. 엄마가 병고를 겪기 때문에 보살피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부모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그 자녀들은 고통스럽고 외롭기도 하지만 잘못된 길로 나가지는 않는다고 말해주었다. 병고에서 회복되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한 다음 걱정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다.

루시아 씨는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입·퇴원을 거듭했다. 어떤 때는 좋아지는 것 같아서 희망을 가지기도 했다. 몇 개월 후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을 의료진으로부터 듣고 남편은 24시간 간호하기 위해 음식점을 동생에게 넘겨주었다. 병원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자 남편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요리를 했다. 점점 상태가 나빠져 침을 흘리고 피를 토할 때에도 남편은 묵묵히, 한결 같이 돌보아 주었다. 환자가 원하는 대로 몇 분마다 불편해 하는 몸을 바꿔주었다.

루시아 씨 부부는 참으로 다정한 부부였다고 했다. 시장에도 함께 가고 일도 함께 하고 행사에도 함께 하고 서로 떨어져서 지내는 시간이 없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함께 갈 정도였다. 혼자 동네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이상히 여겼다고 했다. 더 감동적인 것은 루시아 씨가 “이런 병을 앓게 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부부가 다정한 것을 시기하셔서 하나를 세상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시나 봐요.” 하고 말할 때였다. 나는 바로 대답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느님은 너무 큰 사랑을 시기하시나 봐요!” 지금도 그 아름다운 말은 내 마음에 남아있다. 나에게도 마음의 정화와 치유를 주었고 눈물과 쾌활함을 주었다. 일종의 카타르시스였다. 루시아 씨는 극도로 쇠약해져서 얼마 후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의 도움과 사랑이 함께 있었다. 루시아 씨가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이 기억난다. “제가 먼저 하느님께 가고 남편도 올 거예요. 거기서 영원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만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음 준비가 되었고 큰 걱정이 되지 않아요.” 루시아 씨는 병을 알게 된 후에 성당을 찾아 세례를 받고 투병 생활을 했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고통으로 인하여 정화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 부부가 함께 나누는 사랑과 고통은 루시아 씨의 말대로 영원한 구원의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었다.



조장운 베르나르도 신부  
충남대학교병원 천주교원목실

나는 원목실로 출근하면 제일 먼저 감실 앞에서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환자들을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 일에 제가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하고 기도를 해야 일과를 시작할 수 있다. 실은 아침 묵상 후에도 환자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시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성무일도 중에 청원 기도를 할 때에는 의례적으로 입원환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청원을 덧붙인다.

그렇게 기도하고도 루시아 씨와 같은 환자들을 만나러 갈 때는 환자의 처지를 잘 살펴야 하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된다. 환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영성체를 해드릴 수 있지만 환자가 힘들 때에는 아주 간단히 기도만 하거나 또는 안수만 하고 나와야 할 때도 있다. 병원이 의사의 치료와 간호사들의 간호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사목자들은 소외감도 느끼고 신규 간호사보다도 더 밑에 있다는 느낌으로 병실을 찾아가게 된다. 그래도 환자들이 사목자들의 방문 자체로도 위안과 힘을 얻는 것을 볼 때 방문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지 않을 수 없다. 루시아 씨 부부와 같이 고통을 겪고 사별을 하는 가장 큰 위기를 만날 때 사목자는 영성체, 기도, 병자성사, 안수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함께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구원에 이르는 고통’에서 가르치는 대로 원목자는 환자들의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처럼 구원을 가져오는 고난이 되게 하는데 함께하는 것이다. 그 회칙에서는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원목자는 미사 때에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환자들의 피와 원목자의 피도 하나로 만들어 봉헌한다. 그때에 치유자시요 구원자신 그리스도의 몸에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본당 주임 신부가 코치나 감독과 같다면 원목자는 항상 최일선에 선수로 나서는 선수와 같다. 나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방문을 할 때가 있다. 그때는 힘이 덜 든다. 기도를 함께 하고 어깨에 안수를 같이 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더욱 든든한 장벽이 되어주는 느낌과 힘을 얻는다. 환자들을 방문할 때에 어떤 도움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신앙이 없이 죽어가는 환자라도 원목자에게 선

물로 주는 것이 있다. 환자들과 가족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원목자 자신도 항상 활동하면서 치유를 얻는다. 75세의 원로 개신교 원목 목사 한 분은 아직도 환자들을 만나면서 치유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피곤할 때에도 환자들을 방문할 때는 힘이 솟아나는 것이다. 환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안에서 원목자도 주님의 빛을 함께 누리게 된다.

원목자들은 방문과 활동을 통하여 사랑을 배우게 된다. 예수님이 고통과 위기를 겪는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기 때문에 자신도 점점 환자들을 더 참되게 사랑하게 된다. 루시아 씨 부부에게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을 사목자 자신도 새롭게 체험하며 익히게 된다. 이 남편이 부인에게 한 것처럼 교회와 원목자들은 하고자 한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신앙으로서 당신의 피를 흘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소명을 원목자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목 활동에 평신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함으로 해서 원목자들은 힘을 얻는다. 때로 나는 자원봉사자를 ‘보좌 신부’라고 부른다. 같은 소명을 하며 많은 헌신과 사랑으로 환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때로는 성직자나 수도자보다도 더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고 힘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나는 이 체험기에서 결론처럼 덧붙이고 싶다. 원목자들이 행하는 소명이 얼마나 자신과 교회와 세상에 중요한가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비해서 하고 있는 일은 충분하지 못하고 또한 사목 환경도 다방면에 매우 열악하다. 충남대학교병원과 같은 곳에는 원목자에게 임명장을 병원에서 제정해 주고 명찰도 주고 원목실 자원봉사자들에게 주차권과 점심도 제공하기 때문에 안정되게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한다. 다른 병원들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전에 원목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치유와 빛과 사랑을 풍요롭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중요한 소명인가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